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朴 宗 漢\*

目 次
I. 序 言
II. 世界經濟環境과 展望
1. 概 要
2. 主要先進國經濟貿易動向
1) 美國 2) 日本 3) 西獨 4) 英國
III.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1. 問題의 提起
2. 輸出採算性問題
3. 保護貿易主義와 우리 의 對應策
4. 參考文獻

## I. 序 言

우리나라經濟의 宿命的與件은 3千8百萬이 넘는 人口와 天然資源과의 不均衡이다. 天然資源의 恵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적은 國土內에 너무 많은 人口를 扶養해야하고 한편 높은 生活水準의 先進祖國創造를 이룩해야할 큰 課業을 안고 있다. 이 課業을 위해 採擇해온 經濟政策은 貿易立國이었고 이것을 위해 加工貿易方式을 取하고 있다. 換言하면 우리나라는 累半의 資源을 海外에서 輸入하여 이것을 組立 또는 여러가지 製品으로 加工해서 輸出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付加價值에서 所得의 源泉을 얻고 있다. 이러한 方式은 특히 5·16 後에서 70年代 初盤까지는 個國的 努力으로 順調롭게 이루어져 왔다. 例로서 石油資源은 安價로서 輸入되었고 美國이 領導하는 부레든·웃드體制에 의한 自由貿易主義의 擴大 속에서 우리나라의 製品輸出은 크게伸長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經濟의 高度成長을 갖어다주는 國際環境은 與件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던것이 1971年的 美國의 닉슨·속크와 1973年的 世界石油波動을契机로하여 이와같은 좋은 國際環境은 事情이 크게 變化했다. 그리하여 한편에 있어서는 美國의 世界經濟

\* 本 研究所 研究員, 檀國大學校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 產業研究

的地位의 相對的 低下를 主된 要因으로하여 先進工業國諸國間에 保護貿易主義가 台頭하여 先進國間의 貿易摩擦이 增하게 이려나고 이 保護貿易主義는 그 餘波가 우리나라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產油國의 第一次, 第二次 石油波動에서 成功한 一應의 成果에 刺戟되어 開發途上國間에 資源 나쇼나리즘이 高潮되고 있다. 이것과 開聯하여 新國際經濟秩序(NIEO) 樹立의 높은 소리가 開發國에 의하여 부르짖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들은 우리나라 加工貿易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크나큰 障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世界經濟環境 속에서 우리의 輸出主導型經濟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기 위한 輸出伸長을 어찌한 方法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인가가 큰 課題으로 提起된다.

輸出伸長을 위해서는 활발한 通商外交와 積極的인 國際마아케팅(輸出마아케팅) 活動이 더욱 必要하다. 國際마아케팅은 하나의 經濟活動임으로 世界經濟環境의 影響을 받는다. 國際마아케팅은 2個面의 經濟的環境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世界經濟이고 다른 하나는 國家別로 서로 다른 個別經濟이다.<sup>1)</sup>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輸出에 영향을 주는 世界經濟와 主要個別 國家經濟動向을 考察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과 그 對應策을 論한다.

## I. 世界經濟環境과 展望

### 1. 概 要

世界經濟는 第2次 石油危機를 契機로 하여 3年連續의 長期不況後 83年 後半에 들어서면서 美國을 中心으로 하여 景氣回復에 轉入하였다 (表1-1). 다시 말해서 83年 美國의 實質經濟成長率(GNP)은 3.4%, 日本은 3.0%, 西獨은 1.3%, 英國은 3.1%이었는데 이에 반해 84年에는 上半期의 同成長率이 美國6.5%, 日本5%, 西獨 3.25%로서 英國을 제외하고는 前年實績을 上廻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先進國의 景氣回復狀態에 있는 움직임을 安定的成長軌導에 옮겨놓기 위해서는 國際協調로서 持續的인 것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그 波及效果에 의하여 世界經濟가 擴大均衡으로 向하게 한다는 相互依存關係를 통한 良質의 循環成長型으로 誘導해 나

1) Vern T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3 Edition, The Dryden Press, New York, 1983, p. 22.

2) OECD, *Economic Outlook*, 1984, 7., p. 18.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가야 함이 先進諸國의 課題<sup>3)</sup>로 되어 있음은 再言할 바 없다.

(表 1-1)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率(前年對比, 前期年率%)

	80	81	82	83	83				84	
					I	II	III	IV	I	II
美 國	△0.3	2.6	△1.9	3.4	2.6	9.7	7.6	4.8	6.5	3.25
日 本	4.8	4.0	3.3	3.0	0.7	4.4	6.2	3.1	5.0	4.0
西 獨	1.9	△0.3	△1.1	1.3	1.6	5.1	△0.5	5.4	3.25	2.75
佛 國	1.1	0.3	1.6	0.7	△1.4	2.0	△2.0		1.0	1.5
英 國	△2.5	△1.4	1.9	3.1	6.9	△1.9	2.0	6.3	2	3.25
伊 太 利	3.9	0.1	△0.3	△1.2	2.5	△6.6	3.7		2.5	2.0
캐 나 다	1.0	3.4	△4.4	3.0	6.8	7.9	8.1	3.6	3.75	3.5
上 記 OECD 7 個 國	1.1	2.1	△0.6	2.6	2.6		5.0		5.0	3.0

資料 : OECD. Economic Outlook.

그런데 先進國의 經常收支赤字는 下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의 큰 經常收支赤字에 따라 84 年中 500 억 달러를 上廻할 것으로豫想되며 85 年에는 赤字幅이 多小 더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先進國經常收支展望  
(억 달러)

	1984	1985
先 進 國	△ 514	△ 674
美 國	△ 900	△ 1,150
日 本	350	400
西 獨	48	63
英 國	22	15

資料 : IMF, 1984. 9.

3) 通商産業省, 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 東京, 1984.p. 3.

## 產業研究

美國의 赤字幅이 急增하는데 반하여 EC의 經常收支는 82年의 95억달러의 赤字로부터 83年에는 30억달러의 黑字로 轉換하였으며 日本의 經常收支 黑字는 더욱 擴大되었다.  
 (下記表 參照)

主要先進國의 經常收支

(단위 : 억달러)

	1979	1980	1981	1982	1983
美 國	△ 10	4	46	△ 112	△ 408
日 本	△ 88	△ 107	48	69	208
EC	△ 122	△ 363	△ 136	△ 95	30
OECD	△ 290	△ 700	△ 280	△ 300	△ 240

資料 : OECD, Economic Outlook.

매우 特徵의인 것은 美國의 經常收支赤字의 큰 幅이다. 이것은 美國의 景氣擴大의 速度가 特히 歐羅巴에 比하여 빨라서 輸入이 急增하였다는 것과 美달러高가 美國의 輸出을 不振케 했다는 것 그리고 債務累積問題를 안고 있는 中南美諸國의 輸入抑制등에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消費者 物價動向을 보면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83年中 美國이 3.2 %, 日本 1.9 %, 西獨 3.0 %, 英國 4.6 %이었던 것인데 84年 上半期에 들어와서는 美國이 4.8 %, 日本 2.6 %, 西獨 3.5 %, 英國 5.6 %로서 多少 上昇勢를 보이고 있으나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다. 이 安定勢에는 景氣回復에도 불구하고 그간 國際商品時勢가 6個月 以上이나 下落하는 異常現象과도 關聯이 있다고 보겠다. 國際商品價格은 農作物 및 原資材의 價格動

<表 1-2>

消費者物價上昇率

(단위 : %)

	1983	1984		1985
		上半期	下半期	
美 國	3.2	4.8	5.2	5.2
日 本	1.9	2.6	2.7	2.9
西 獨	3.0	3.5	3.0	2.9
英 國	4.6	5.6	5.9	6.1

資料 : 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Outlook, 1984. 8.

상을 綜合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原資材價格이 떨어지면 韓國 日本과 같은 加工貿易을 하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는 國家로서는 좋은 現象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次產品 輸出國의 外貨收入이 減小되어 韓國이나 日本의 輸出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面도 있다. 韓國이 對中東建設輸出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나 日本의 中東 플랜트輸出이 激減하고 있는 事實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 物價安定勢는 基本的으로는 第2次 石油危機 以後의 繁榮金融政策의 成果이지만 이것과 더불어 原油價格의 下落 또 雇用事情의 悪化에 의한 勞賃上昇率의 鈍化 그리고 美國의 경우에는 美달러 貨強勢가 좋은 影響을 준 것이라고 보여진다.

失業率에 대하여 보면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年中 美國 9.6%, 日本 2.7%, 西獨 9.3%, 英國 11.3%이었는데 반하여 84年에 들어와서는 上半期에 美國이 7.8%,<sup>5)</sup> 日本 2.7%, 西獨 8.8%, 英國 11.4%로서 日本의 保合狀態를 維持하고 있고 그외는 모다失業率이 下落을 나타내어 好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C의 失業은 큰 問題로 남아 있다.

<表1-3> 失業率 (단위 : %)

	1983	1984		1985
		上半期	下半期	
美 國	9.6	7.8	7.4	7.5
日 本	2.7	2.7	2.7	2.8
西 獨	9.3	8.8	8.0	7.8
英 國	11.3	11.4	11.6	11.7

資料 : 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Outlook, 1984. 8.

先進諸國의 景氣回復은 世界交易量 增大에 크게 影響을 주었으며 <表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年에 마이너스 2.5%이었던 것이 83年에는 2.0% 增加를 示現하였고 84年에는 8.7%의 增大를 보여 줄것이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85年에는 4.0%의 增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世界貿易의 增大를 뒷받침 해주는 經濟的要因으로 들수 있는 것은 첫째 主要先進諸國의

4) 日經비즈니스의 分析, 韓國經濟新聞, 1984. 11. 14, p. 5.

5) TIME, November 19, 1984 p. 40.에서는 失業率을 7.4%로 記錄하고 있다.

## 產業研究

世界交易量 (단위 : %)

	1982	1983	1984	1985
世 界	△ 2.5	2.0	8.7	4.0
先 進 國	△ 0.5	4.1	11.5	4.3
美 國	△ 5.0	10.0	29.8	5.4
日 本	△ 0.5	1.3	4.9	4.9
開 途 國				
產 油 國	6.5	△ 10.2	△ 0.6	1.6
非 產 油 國	△ 8.3	△ 0.6	5.6	4.0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4.4.

의 物價安定이다. 이 物價安定은 各國의 個人消費, 民間設備投資의 擴大를 가져오게 하였다. 둘째로는 美國의 繼續的인 輸入需要의 擴大에 의하여 各國은 對美國 輸出增加를 通해 景氣擴張을 도모하고 있다. 또 石油價格低下의 傾向은 交易條件의 改善을 通한 所得增大效果를 가져다주어 石油消費國의 經濟好轉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앞으로 中東事態에 큰 變化가 없는 限 原油價格의 安定은 當分間 持續되리라고 보여진다. 이와같이 84年的 世界經濟는 先進諸國을 中心으로 하여 밝은 面을 보여주고 있어 76年이래 世界經濟가 가장 好調를 보인 해로서 世界生產 및 交易이 急速한 增加를 보였다.

美國의 85年經濟는 84年 上半期와 같은 經濟成長率을 維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나 11月 28日에 美國聯邦準備制度의 割引率이 9%에서 8.5%로 引下되었고 一部 美國銀行들이 プライム·레이트를 11.75%에서 11.25%로 내렸기 때문에 85年初期에는 成長을 위한 一時的 鈍化를 보일뿐 다시 不況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豫見된다.

歐洲先進國의 85年 經濟成長率은 3%線에 머물 展望이고 開途國 역시 美國의 高金利의 영향을 받어 國內需要 및 輸入의 鈍化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總體的으로 볼 때 美國經濟의 鈍化가 他國의 成長加速에 의해 完全히 補填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85年的 世界經濟는 全般的으로 낮은 인플레 속의 安定된 成長의 해로 記錄될 것이 評價되고 있다.<sup>6)</sup>

6) London貿易館特電, “英政府, 85年度經濟展望”, 海外市場, KOTRA, 1984 11. 22. p. 13.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그렇지만 先進諸國 特히 EC 의 失業問題 등으로 先進諸國은 입으로는 自由貿易主義를 論하고 있기도 하나 保護貿易主義는 더욱 強化되고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國際貿易環境에서 우리나라를 輸出을 해야 한다.

以上에서 世界經濟環境과 展望에 대하여 概略的으로 論하여 왔거니와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主要 先進國의 經濟貿易動向을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 2. 主要先進國經濟貿易動向

#### 1) 美 國

우선 美國을 보면 景氣는 힘찬 上昇勢를 보여 今年 들어 消費, 設備投資 등의 好調로 1/4 分期中 10.1%의 높은 成長을 나타냈으며, 2/4 分期에도 當初 展望 5.7%를 크게 上迴하는 7.6%를 記錄하여 景氣上昇勢가 持續되고 있었다.<sup>7)</sup> 이처럼 美國經濟가 好調를 보이고 있는 것은 個人消費支出이 物價安定 등에 힘입어 自動車 등 耐久消費材를 中心으로 繼續 好調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投資部門에서 設備投資가 稼動率 上昇과 企業收益改善 등을 背景<sup>8)</sup>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景氣回復을 가져오게 한 要因으로서는 「81年經濟再生租稅法」에 의한 個人所得稅와 投資減稅를 들수 있다. 82年 7月에 實施된 10%의 所得減稅의 效果와 인플레이션 鎮靜에 의한 實質購買力의 回復이 長期不況으로부터 反動需要를 顯在化 시켜 住宅投資라든가 耐久消費財 등 最終需要의 急速한 擴大에 영향을 주었다. 더우기 設備의 加速度償却制度는 企業收益을 크게 好轉<sup>9)</sup> 시켰으며 이러한 景氣上昇에 힘입어 產業生產은 20個月 連續 增加하고 있으며 設備稼動率도 계속 上昇하여 7月中 82.6%<sup>10)</sup>에 이르고 있다.

좀더 說明하면 레이건經濟政策은 사프라이·사이드를 重視하여 金融緊縮에 의한 인플레이션 抑制, 減稅에 의한 設備投資의 促進으로서 美國經濟의 活性化를 目標로 하였다. 그結果 인플레이션의 鎮靜化, 設備投資의 本格化를 가져오게 하고 失業率을大幅 줄이는 등 大體的으로 當初의 目標達成을 하였다.

7) 韓國貿易協會, 最近國內外經濟動向, 1984 9. p. 37.

8) 韓國貿易協會, 前掲書, p. 38.

9) JETRO, 世界と日本の貿易, JETRO 白書, 1984 p. 32.

10) 韓國貿易協會, 前掲書, 1984 9. p. 38.

## 產業研究

그러나 그 다른 部門에 있어서 美國經濟體質에 어려운 問題를 안겨다 주었다.

그 第一은 財政部門의 巨額의 財政赤字이다. 減稅와 國防費의 增大로 83年會計年度의 財政赤字는 1750億달러란 巨額에 달한다. 美國의 데이타·리소스社(Data Resource Inc)는 1988年에는 이 赤字가 2270億달러에 達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한편 美國行政府는 앞으로 4年間의 財政赤字는 合計 8460億<sup>11)</sup> 달러가 되리라고豫測하고 있다. 따라서 行政府支出을 制限하든 무슨 對策이 있어야 한다는 美國經濟專門家들의 意見이 높다. 앞으로의 그 歸趨가 注目된다.

第二는 全融通貨部門에 있어서 高金利와 그 影響을 받는 美달러貨의 強勢이다. 美國金利는 84年 4月부터 다시 上昇勢로 들어가 7月의 プライム·レート는 13%로서 82年度以來의 最高水準을 記錄하였으며 이와같은 高金利는 各國經濟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 이 高金利는 지난 10月初부터 若干식 떨어지기 시작하여 11月初에 와서는 11.75%를 유지하였다.<sup>12)</sup>

政府借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高金利는 外國投資者에게 그들의 돈을 美國에 投資하게 자극을 주었으며 이 結果는 美國달러貨를 強勢로 轉換하게 하였던 것이다. 달러貨強勢는 外國市場에 있어서 美國會社들의 國際競爭力を 크게 弱化 시켰고 General Electric의 제트·엔진으로부터 캐터피라·트렉타(Caterpillar tractors) 등에 이르기까지 그 價格을 밀어 올리고 있다.

레이건 大統領이 行政府에 들어선 以來 美달러貨는 世界主要國通貨에 대하여 60%나 그 價值를 上昇시켜 強勢를 維持하고 있다. 萬若에 美國달러가 繼續強勢에 머물러 있게된다면 美國產業들은 門을 닫어야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美國 大統領은 產業保護에 대한 壓力を 받게 될 것이라고 MIT의 Lester Thurow 教授는 말하고 있다. 美行政府는 한편으로 自由貿易主義를 信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競爭力이 弱한 그런 美國 產業들의 產業保護에 대한 要求를 이미 빙어들어 모타·사이클, 自動車, 鐵鋼에 대한 輸入制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만 現在 保護를 받고 있는 오래된 既存産業 뿐만 아니라 先端技術産業의 會社들도 國際競爭力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打擊을 받고 있다.<sup>13)</sup>

11) TIME, Nov. 19, 1984, p. 40.

12) Business Week, New York, Nov. 26, 1984, p. 84.

13) TIME, Nov. 19, 1984, pp. 41-42.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第三은 商品貿易面에 있어서 貿易收支가 크게 悪化된 事實이다. 美國經濟의 景氣擴大와 달러貨의 強勢로서 83年의 貿易收支의 赤字는 694億달러로서 史上最高額을 記錄하였다. 84年에는 1,300億달러의 赤字로 될 것이豫想되어 그것이 美國經濟에 주는 打擊은 分明히 增加될 것이다. 따라서 巨觀經濟學專門家(macroeconomists)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간에 美國經濟의 利益을 擁護하기 위해서 過去에 實施해 온 것보다 더 強力한 方式으로 關係國家들과 새로운 貿易에 관한 合意 내지 約定을 서둘게 될 것이라고 美國의 貿易擔當高位官史는 말하고 있다. 이 合意는 兩國間貿易交涉(bilateral trade negotiations)을 意味하며 先進諸國과 開發途上國과 兩國貿易會談을 가짐으로써 美國의 輸出品에 대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除去해 보자는 것이다.<sup>14)</sup>

美國의 GNP成長率은 84年 上半期에 8.6%를 示視하였던 것이 3/4에는 2.7%로 急激히 떨어졌음으로 美國經濟가 下降局面에 빠져 들어가지 않나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별써 있다. 다시 말해서 所謂 成長不況(growth recession)에 들어가거나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經濟專門家들은 곧 새로운 不況이 있을 것이라는 見解에 대해서 賛成하지 않고 있다.

例로서 前 Ford 大統領의 經濟諮問委員會議長을 했던 Alan Greenspan은 이것은 하나의 小康(lull)狀態이며 停滯하기 위한 小康狀態는 아니며 經濟가 잠깐 머물고 있음에 不過하다고 말했다.<sup>15)</sup> 또 前 美大統領經濟諮問委員會 委員長인 Paul W. McCracken 教授는 85年 不況說에는 賛成하지 않으며 85年에는 實質成長率 5%를 나타낼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若干 下迴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85年에 들어서면서 財政赤字削減에 대한 具體的인 措置가 講究될 것이豫想됨으로 그렇게 되면 經濟成長은 今後數年間 좋은 方向으로 持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16)</sup>

美聯邦準備制度는 84年 11月 28日에 割引率을 9%에서 8.5%로 引下하였다. 따라서 채이스·맨하탄 銀行外 몇 개의 地方銀行들은 프라임·래йт를 11.75%에서 11.25%로 내렸고 85年 中半期까지에는 10%線까지 引下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sup>17)</sup>

14) *Business Week*, Nov. 12, 1984, p. 23.

15) *TIME*, (Nov., 19, 1984)

15) *TIME*, (Nov., 19, 1984), p. 40.

16) エコノミスト, 每日新聞社, 日本, 1984 10. 9. 號, p. 12.

17)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Nov. 26, 1984, p. 2.

## 產業研究

그러므로 美國經濟는 今年末 또는 明年인 85年 初盤에 다시 上昇勢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까지의 모든 85年 經濟展望은 美國의 高金利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下에서 그 展望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18)</sup>

### 2) 日 本

日本經濟는 美國 등 先進諸國에 대한 輸出好調에 힘입어 持續的으로 成長하고 있으며 景氣가 各部門으로 擴散되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輸出增大에 따라 設備投資가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個人消費와 住宅建設도 완만하게 增加하고 있다.

消費支出面을 보면 景氣擴散에 따라 全世帶의 實質消費支出은 前年同月比로 4月 0.7%, 5月 1.3% 增加하였다. 小賣販賣 動向을 보면 全國百貨店 販賣額은 前年同月比로 5月 2.8%, 6月 4.5% 增加하였고 連鎖店 販賣額은 前年同月比로 5月에 0.8% 減小하였으나 6月은 2.5% 增加를 나타낸다.<sup>19)</sup>

設備投資面을 보면 日本會社들은 新工場과 設備投資를 增加시키고 있다. 今年의 資本投資는 80年 以來 가장 크다. 日本의 經濟專門家들은豫見하기를 이 投資의 增加는 많이 必要로 한 國內需要를 刺戟하고 明年的 景氣擴大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日本製造業者들의 資本投資는 今年에 約 18%, 金額으로는 約 400億달러나 上昇할 것이라고 한다. 이 러한 돈은 生產의 現代化와 自動化 그리고 生產量의 擴大에 投資될 것이고 그 結果는 日本會社들의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國際競爭力を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新規投資時의 注文은 外國供給者들 보다도 日本 國內供給者를 통하여 행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外國人們에게는 별로 歡迎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한편 도요다 모타會社 같은 自動車會社들은 新規工場 보다는 새로운 調查研究와 新製品開發(R & D)에 그들의 資本을 投資하고 있다. 또 先端技術部門에 대한 投資는 急激히 擴大되어 가고 있고 이중 電子會社들이 가장 極盛的으로 하고 있다. 今年의 先端技術部門의 投資는 約 41.9% 增加할 것이고 이것은 金額으로서 約 70億달러가 될 것이다.<sup>20)</sup>

日本은 美國의 景氣回復과 美달러貨強勢의 影響을 받어 그 貿易收支의 黑字는 더욱增

18) "Business Outlook", *Business Week*, Nov. 26, 1984, p. 21.

19) 韓國貿易協會, 前揭書, p. 43.

20) *Business Week*, Oct. 15, 1984, p. 37.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加하여 82 年 69 億달러, 83 年 20 億달러, 84 年 上半期에 135 億달러를 示現하면서 增加基調에 있다.<sup>21)</sup>

우리나라의 對日貿易 不均衡에 대한 要求와 批判은 물론 歐美各國의 對日批判이 擴散되고 있어 그 貿易黑字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市場開放, 內需擴大에 의한 輸入需要의 喚起, 製品輸入의 促進 등 輸入擴大方向으로 政策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輸入促進은 美國 및 EC 諸國의 市場開放 壓力を 무마하기 위한 對先進國 輸入擴大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우리나라의 對日輸出關心品目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貿易不均衡에 도움되는 우리나라 商品에 대한 輸入促進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

### 3) 西 獨

EC 諸國에서는 西獨, 英國을 中心으로 景氣回復의 色彩을 진하게 하고 있다.

西獨은 83 年初부터 回復에 들어가지 시작하여 後半에 와서는 本格的인 回復勢에 들어갔다. 今次의 景氣回復은 設費投資, 個人消費에서 시작한 內需의 好調에 의한 것이었다. 特히 82 年末부터 83 年初에 이르러 實施된 一連의 景氣浮揚策의 內需刺戟效果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個人消費는 주로 乘用車, 家具, 民生用 電子式機器 등 耐久消費財의 支出에서 그 伸長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83 年 後半에 들어서면서는 輸出이 景氣回復의 先導役을 했다.<sup>22)</sup>

輸出은 今年 6月中에는 金屬 労組의 長期罷業으로 海外受注가 大幅 減小하여 前月比 14.6 % 減小하였지만 7月에 들어와서는 罷業의 終結로 海外受注가 增加함에 따라 輸出은 前月比 11.4 %, 83 年同月比 18.9 % 增加하였다.<sup>23)</sup>

西獨政府는 84 年 2月에 經濟年次報告를 發表하였는데 이속에서 國際競爭力의 強化, 勞動市場의 擴大, 產業構造의 變化을 이룰것을 經濟運營의 方針으로서 내세워 西獨經濟의 再活性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西獨은 先端技術部門(情報處理裝置, 通信, 電子機器, 醫療機器, 測定機器)의 競爭力에 대하여 分析하고 日本, 美國에 뒤떨어져 있다고 指摘하고 이 部門의 國際競爭力を 維持・強

21) JETRO, 前揭書, p. 12.

22) JETRO, 世界と日本の貿易, JETRO白書, 1984 p. 191.

23) 韓國貿易協會, 前揭書, 1984. p. 53.

## 產業研究

化하기 위해서 産業構造變化에 대한 機極的인 努力이 必要함을 다시 強調하고 있다. 이에 대한 具體的 措置의 一環으로서 3月에 先端技術助成을 目的으로 總額 30億 마르크에 達하는 振興費를 決定하였다.<sup>24)</sup>

韓國의 西獨에 대한 輸出關係를 보면 對西獨輸出은 83年에 774百萬달러이고 84年 上半期는 471百萬달러로서 前年同期比 32.5%의 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對西獨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섬유, 신발류 등 종래의 物量위주 低價格을 高級化하여 附加價值의 提高가 時急 하며, 도자기 등은 生產工程 技術導入을 通한 精密光學機器 開發 및 輸出 有望品目 育成이 必要하다.<sup>25)</sup>

### 4) 英 國

英國의 GDP 實質成長率은 82年的 1.7%에서 83年 3.1%의 上昇記錄을 보였으나 84年에는 2.5%를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다.

英國産業聯合會(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는 萬若에 石炭礦夫들의 現罷業이 今年末에 끝난다면 85年的 經濟成長率은 3.25%에 달하게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 樂觀的인 새로운豫測에서 輸出과 消費支出은 明年에도 強勢를 維持할 것이고 龍業이 終結은, 英國經濟成長에 1%를 보태주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豫見하고 있다. 이들은 몇 달 前만 해도 85年的 成長率을 2.75%로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聯合會는 그러나 石炭礦夫들의 파업이 繼續된다면 그 成長率은 減小될 것이며 또 世 界經濟의 急激한 下降勢가 있을 시에는 英國經濟의 成長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sup>26)</sup>

그런데 英國經濟의 景氣回復의 始動役을 했던 個人消費는 83年에 前年對比 3.8%增加, 84年 1/4 分期에 前年同期對比 2.0% 增加로서 여전히 上昇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國內 生產의 增大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輸入品의 增加를 가져오고 있음으로 英國産業의 國際 競爭力에 若干의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

失業 問題는 뚜렷한 치유책을 찾지 못한 채, school leaver 를 除外한 英國地域(北아일랜드 除外) 失業水準은 84年 85年中 300萬名台를 持續할 展望이다.<sup>27)</sup>

24) JETRO, 前揭書, 1984, p. 192.

25) 大韓貿易振興會社, 우리나라의 輸出現況(84年上半期), 1984 8. p. 69.

26) *The ASIAN WALL STREET VOURNAL*, Nov. 26, 1984, p. 5.

27) KOTRA, 海外市場, 1984, 11. 22. p. 14.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貿易面을 보면 83年 英國의 貿易은 輸出(FOB) 606億 5,800萬 파운드, 輸入(FOB) 611億 5,800萬 파운드로서 貿易收支는 5億 파운드의 赤字를 나타냈다. 이것은 石油收支가 前年에 23億 8,400萬 파운드의 黑字에서 大幅 增加한 70億 100萬파운드의 黑字를 記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非石油部門의 收支가 75億 100萬파운드의 赤字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加工貿易은 產業革命 以來 처음으로 23億 900萬파운드의 큰 赤字를 記錄하였다. 이 事實은 減量經營으로 生產性 向上에 努力を 해온 英國企業으로서는 큰 衝擊이 아닐 수 없다.

輸出先을 보면 그 76.6%가 先進國이고 그중 最大輸出市場은 EC로서 全體 輸出額의 43.7%를 占하고 있고 北美 15.4%, 其他 유럽국이 12.7%로 되어있다. 先進國에 대한 輸出은 繼續 늘어나고 있고 84年에도 增大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에 反하여 對開途國 輸出은 前年の 23.4%에서 83年에는 21.0%로 減小를 보이고 있다. 輸入面에 있어서도 先進國이 中心이 되어 그 比重은 89.4%로서 대단히 크다.<sup>28)</sup>

우리나라의 對英國 輸出은 83年 10億 200萬달러, 84年 上半期에는 4億달러로서 前年同期比 16.1% 減小를 나타내어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製品의 競爭力에 큰 影響을 주고 있는 파운드貨의 繼續的 下落勢는 우리나라 輸出增大의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對英國輸出의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것은 우선 今年 1~4月間 CCCN 8單位를 基準으로 한 競爭國들의 進出品目類와 比較해 볼 때 우리나라 845個目品이고 台灣은 1,346個品目으로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輸出品 開發을 더 해야한다. 두번째로는 業界的 GSP 制度 등 英國의 輸入管理制度에 대한 理解不足이고 세번째로는 換率急變에 대한 對策講究의 必要性이다.<sup>29)</sup>

## III.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 1. 問題의 提起

우리는 1971年 美國의 닉슨·속크와 第一次, 第二次 石油波動 등 어려운 國際貿易環境

28) JETRO, 前揭書, 1984, p. 198 ~ 199.

29) 大韓貿易振興會社, 前揭書, 1984. 8. p. 64.

## 產業研究

을 지내오면서도 우리나라 輸出規模는 지난 20年間에 크게 늘어나 約 240倍나 增大됨으로서 世界에서 14大輸出國으로 浮上하였다. 이러한 過程에서 產業構造도 高度化되어 輸出商品構造는 큰 質的變化를 가져왔다. 64年 輸出總額의 52%였던 工產品의 輸出比重은 그후 持續的으로 增大되어 今年 上半期統計를 보면 95.3%로 驚異的 增大를 記錄하였다.

특히 工產品의 그 比重이 80%선을 넘기 시작한 70年이래 나타난 가장 特徵的 輸出構造上의 變化는 70年度에 輸出總額의 15%에 不過했던 重化學製品의 輸出比重이 84年上半期統計<sup>30)</sup>에는 55.3%에 달하고 있는 반면 輕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은 40.0%, 1次產品은 3.4%水準으로 相對的으로 크게 低位에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急激한 變化가 說明해 주듯이 70年代이후 나타낸 急速한 輸出增大는 주로 重化學製品增大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過程에서 1次產業과 輕工業 部門의 輸出寄與도 그 位置를 無視할 수는 없다.

結果的으로 이같은 政府主導下의 輸出構造上의 急變은 重化學工業 部門의 持續的인 輸出增大까지도 저해할 程度로 적지않은 問題點을 안고 왔다. 따라서 輸出產業 全般에 걸친 새로운 輸出戰略를 찾어야 할 다급한 課題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外貨稼得率이나 採算性보다는 外形的인 輸出活動이 強調되면서 輸出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不合理性과 非效率性도甘受할 수밖에 없다는 非正常的인 企業心理와 政策的姿勢가 팽배해 왔던 것이다. 그 結果 小規模의 內實있는 輸出을 外面한 떠들썩한 宣傳 위주의 輸出이라든가 일시에 大市場에 集中된 「소나기式 輸出」 또 過當競爭으로 輸出秩序를 교란시킴으로써 主要 對象國으로부터의 驚戒心 增大와 함께 輸出의 非價格競爭力を 저해하는 要因으로 作用해 왔던 것이다. 또 이와같은 것들은 輸出制限 措置를 取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社會的 論議나 이것을 克服하기 위해 企業部門과 政策當局의 努力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도 우리나라 經濟는 體質的으로 그와같은 成長阻害要因이 대부분 남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輸出伸長을 위해 輸出마아케팅 管理者들은 마아케팅 目標가 達成될 수 있게 統制 不可能한 諸要素를 考慮하여 統制可能한 諸要素와 잘 結合시켜 合理的이고 效

30) 韓國貿易協會, 1984年上半期 貿易 및 國際收支動向, 1984, 7.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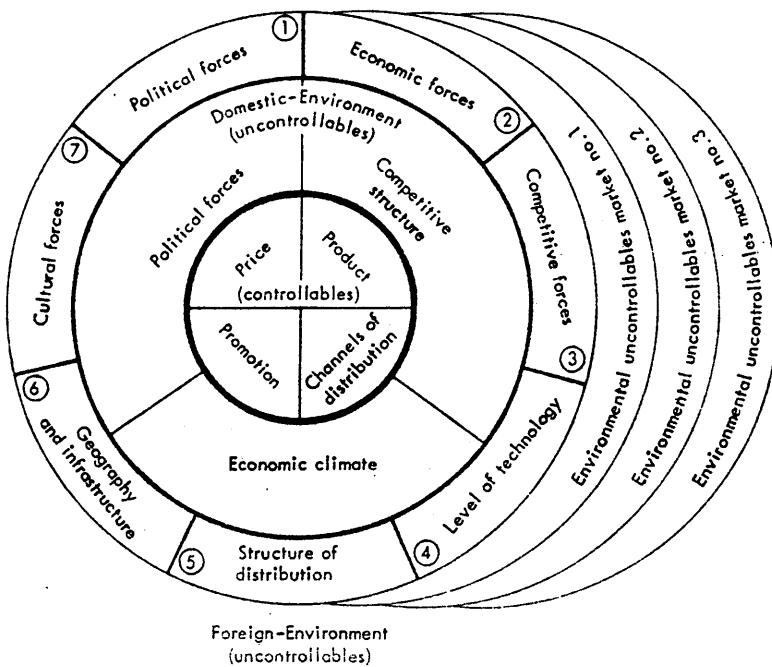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率性 있는 새로운 輸出마아케팅 戰略을 갖어야 함이 시급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마아케팅諸活動에 있어서는 意思決定者가 統制可能한 諸要素로서 製品, 價格, 版賣促進, 流通經路를 包含시킨다. 또 統制不可能 諸要素로는 國內와 國外가 있는데 國內의 統制不可能 諸要素에는 競爭構造, 政治諸勢力, 經濟情勢 등을 包含시키고 國外 다시 말해서 諸外國에서 當面하게 되는 統制不可能諸要素로서는 政治諸勢力, 經濟諸勢力, 文化諸勢力, 競爭諸勢力 등을 包含시키고 있다.<sup>31)</sup>

〈圖表 1-1〉

**The international marketing task**



31) Philip R. Cateora, *International Marketing*, 5th ed., Richard D. Irwin Ind., Homewood, Illinois, 1983, pp. 6-7.

普通 말하기를 成功한 經營者라는 것은 비지니스 情況의 不確實性에 대하여 最善의 適應이 計劃되겠음 마아케팅·프로그램을 잘 짜는 者를 말한다. 마아케팅 管理者는 傘想需要를 위하여 統制可能 諸要素인 價格, 製品, 發賣促進, 流通經路로서 마아케팅·믹스를 諸事業活動을 위해 잘 짤 수 있다. 그러나 統制不可能 要素는 統制不可能함으로 이것에 積極適應하지 않으면 않된다. 統制不可能 諸要素의 영향은 輸出마아케팅 努力의 最終成果를 左右하기 때문이다.<sup>32)</sup>

國外의 統制不可能 諸要素에는 各國의 輸入規制들도 包含된다. 다시 말해서 產業保護를 위한 保護貿易主義가 이에 包含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增大를 위해서는 이미 說明한 바와 있는 統制可能諸要素와 統制不可能諸要素를 包含한 <圖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토오탈·마아케팅(total marketing)의 接近方法으로 論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筆者는 이글에서는 그 範圍를 아주 縮小시켜서 앞에서 말한 바 있는 輸出마아케팅의 問題中 우선 輸出採算性, 過當競爭에 대하여 論하고 그 다음에 保護貿易主義와 우리의 對應策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 2. 輸出採算性問題와 對應策

國際마아케팅은 一國以上의 消費者(consumers) 또는 使用者(users)의 方向으로 어떤 會社의 財貨 및 씨비스의 흐름을 誘導해 가는 經營者活動의 遂行(performunce)이다.<sup>33)</sup> 經營은 會社의 利潤을 위해서 한다. 傳統的 在來의 經營專門家들은 말하기를 會社의 주된 目標는 利潤의 極大化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今日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主張은 社會的 批判을 받는다. 企業은 公害 또는 企業活動에서 發生한 諸事故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利潤을 올리지 못하는 會社는 社會를 위해서나 그 會社自體를 위해서도 좋은 것은 아니다.<sup>34)</sup> 會社는 利潤을 올려야 하지만 社會的 責任感도 가져야함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32) Ibid, p. 8.

33) Ibid p. 4.

34) Vern J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3 edition*, The Drydenpress, New York, p. 167.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每年 輸出目標額을 定해 놓고 그 目標額 達成을 위해 全力投球를 한 結果 우리나라 輸出總額은 每年 增加해 가고 있다. 이 增加의 理由는 여러가지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例로서 經濟的 理由로서는 우리나라 製品의 比較優位에 있기 때문에 輸出이 增大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원貨」의 購買力平價의 低位가 輸出伸長力의 原動力이라고 說明할 수도 있다. 또 業界, 官界 그리고 國民全體의 輸出努力의 結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理由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是 資本主義體制國家으로 輸出를 행하고 있는 企業이 利潤의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民間會社인 限 輸出은 그 企業 내지 輸出會社의 利潤追求의 目的에 合致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企業은 自己會社의 製品을 輸出할 것인가 않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할 境遇 적어도 企業體가 生存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는 價格은 費用을 充當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sup>35)</sup> 그 輸出價格이 아무리 低位에 있다 하더라도 企業全般의 經營面에서 볼 때 도움이 됨으로 輸出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輸出을 해도 採算性이 없어 實益이 없다는 말을 輸出業者로부터 많이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럴까. 그 原因으로 2개를 例舉할 수 있다. 첫째는 輸出單價의 問題이고 둘째는 過當競爭이다. 우선 輸出單價에 대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輸出單價는 上昇함이 없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래서 採算性이 나아지지 않는다.

國際通貨基金이 發表한 統計(IFC)에 의하면 79年에서 83年까지 5年間 國際平均輸出單價는 1.9% 上昇했는데 우리나라의 平均上昇率이 0%로 集計되어 있다. 最近 몇년 간의 輸出單位指數推移를 韓國銀行統計로 보면 80年을 基準( $80 = 100$ )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輸出單價指數는 81年이 103.2, 82年 99.7, 83年 95.9, 84年 上半期 99.7이다. 81年에는 前年보다 3.2% 上昇했다가 82~83年中에는 0.3%와 4.1%가 각각 減小되었으며 84年 上半期에는 다소 回復되어 0.3%의 減小를 나타내고 있다.<sup>36)</sup>

한마디로 論해서 輸出單價指數는 若干 오르고 또 내리고도 했으나 결국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產業別 輸出單價指數는 81年( $80 = 100$ )에 食料品이 102.6에서 83年 91.2로 떨어졌

35) P. R. Cateora, *International Marketing*, p. 557.

36) 韓國銀行, 主要經濟指標, 1984, 11. 5. - No. 22, p. 5.

## 產 業 研 究

고 輕工業 製品은 102.0에서 94.2로 그리고, 重化學 製品은 97.1에서 86.8로 각각 下落을 보였다.<sup>37)</sup> 결국은 全產業에 걸쳐 輸出單價指數가 떨어졌다.

그간 低賃金의 勞動力を 勤員해서 採算性을 맞추어 오던 輕工業 製品은 競爭國의 挑戰과 品目에 따라서는 中共 등의 進出로서 輸出單價指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結果를 가져

產 業 別 輸 出 單 價 指 數

1980 = 100

	食 料 品	原 燃 料	輕 工 業 製 品	重 化 學 製 品
1981	102.6	104.2	102.0	97.1
1982	89.3	94.4	98.7	93.5
1983	91.2	106.1	94.2	86.8

資料：韓國貿易協會

왔다. 重化學 製品分野에 있어서도 基礎原料에 대한 海外依存度가 높아 高度의 技術開發로서 生產性을 더 높이지 않는 한 價格競爭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輸出量이 늘어난다해도 採算性이 없는 輸出은 輸出基盤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처럼 採算性이 없는 輸出을 繼續해야 하는 背後에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既存市場의 確保 내지 擴張, 무리한 生產規模의 維持로서 施設活用과 이에따른 雇用維持 등이 큰 要因으로서 作用하고 있다.

한편 採算性이 없는 商品輸出을 企業體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國內市場에서 그 損失를 補充하자는 低意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國內消費者保護의 立場에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外國市場에서 輸入規制를 받는 對象品目으로 轉換하게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따라서 輸出商品의 單價를 올려 採算性이 保障되지 않는다면 持續的으로 輸出擴大를 바라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採算性의 保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利潤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利潤이 保障되지 않는 企業諸活動은 長期的으로 볼 때 持續될 수 없게 된다.

採算性을 위해서는 현재 보다도 더 많이 技術開發投資를 해야한다. 그리하여 競爭國에 비해 높은 水準의 技術로서 品質의 高級化와 生產性向上을 이룩하여 높은 輸出單價로서付

37) 韓國貿易協會, 貿易動向 1983, p. 41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加價值를 높이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또 採算性이 없는 둘째 이유에는 過當競爭에서 오는 要因도 있다. 過當競爭은 百害無益이며 이것은 出血輸出(Bloodshed Competition)이라고도 말하며 이 때문에 韓國製品이 外國市場에 범람하여 對象國의 輸入制限運動을 이르킬 수도 있다.

過當競爭에 대한 實例를 들려보면 中東의 사우디아라비아의 AL A社는 韓國으로부터 자수직물을 輸入하고 있는데 매년 年末이면 韓國메이커 및 纖維取扱商들이 대거로 사우디에 몰려와 價格을 내려 놓음으로서 市場秩序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境遇가 많다고 하며 또 韓國產 타이어를 輸入하고 있는 리비아 A社는 韓國의 D社와 S社의 지나친 競爭으로 價格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sup>38)</sup>

따라서 우리나라 업자끼리의 過當競爭에 대한 對策이 必要하다. 過當競爭에 대한 對策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業界自體의 自覺이다. 過當競爭은 「문어가 자기 다리를 食하는」 것과 같은 것임으로 輸出會社의 企業利潤을 直接的으로 해롭게 함으로 그것을 自覺해서 自制할 必要가 있다. 둘째로는 주로 大會社가 取扱하는 プ란트, 車輛 등의 外國購買機關의 國際入札에 應札할 때 韓國會社들이 團結해서 共同入札 또는 輪番入札制 등을 採擇함이 要請된다. 세째로는 輸出品에 대하여 業界 또는 輸出組合의 自主規制가 充分치 못할 경우에는 行政關係處에서 적절한 勸告, 指示 등에 의한 行政指導를 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네째로는 同一한 地域의 海外市場에 있어서 한 製造會社의 製品을 여러 輸出會社가 取扱할 경우가 있는데 輸出窓口를 一元화할 必要가 있다.

### 3. 保護貿易主義와 우리의 對應策

先進諸國의 對韓輸入制限措置<sup>39)</sup>를 보면 先進 19個國에서 CCCN 4單位로 해서 品目數로는 1984(1~6) 現在 159個 品目에 달하고 있다(表1-1 參照). 그리고 主要品目으로는 섬유류, 鐵鋼製品, 신발류, 其他 電子製品, TV, 가방류, 金屬製, 洋食器, 타이어 및 튜브, 紡織物, 陶磁器, 양송이통조림, 水產物 등이다.(表1-2 參照)

規制形態로는 數量規制, 價格的規制, 行政的規制로 나눌수 있다.

38) 大韓貿易振興會社, 中東·아프리카 市場에서 韓國商品에 대한 聲價調查, 1984. 7, p. 29.

39) 韓國貿易協會, 最近輸入規制情報(1984. 9. 16 ~ 9. 30), p. 60 ~ 63.

產業研究

〈表 1-1〉 年度別 規制現況(先進 19 個國)

(單位 : 百萬弗, %)

年 度 別	品 目 數 (CCCN 4 單位)	被規制品目的 輸出實績(A)	對先進國 總輸出(A)	比 重 ( A / B )
1980	142	4,244	11,131	38.1
1981	150	6,025	13,168	45.8
1982	152	6,010	14,036	42.8
1983	159	6,471	16,270	39.8
1984 (1-6)	159	4,234	9,676	43.8

註 : '81 年以後 輸入規制比重이 減少하고 있는 것은 輸入規制가 緩和된 데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고 規制品目的 輸出減少와 船舶등 非規制品目的 輸出增加에 基因함.

〈表 1-2〉

主要品目別 規制現況

(單位, %)

品 目	1981	1982	1983	1984 (1-6)
織 織 類	51.0	55.8	59.1	63.8
鐵 鋼 製 品	46.1	43.0	39.0	62.7
신 발 류	71.0	78.4	79.5	85.6
其他 電子 製 品	22.5	16.2	16.3	12.7
T V	14.4	28.3	51.2	40.2
가 방 류	46.5	1.7	2.0	1.0
金 屬 製 洋 食 器	29.6	30.7	79.6	71.2
타 이 어 및 튜브	4.6	5.2	7.0	45.0
絹 織 物	79.7	79.3	71.9	66.2
陶 磁 器	0.2	0.8	13.2	13.2
양 송 이 통 조 텁	51.3	50.3	78.8	0.5
水 産 物	29.9	26.6	26.3	28.2

資料 : 韓國貿易協會

##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이러한 各種 輸入規制는 對先進國總輸出 162 억 7 천만 달러중 39.8 %을 占하고 있어 우리나라 輸出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 輸入制限은 國際마아케팅課業(International Marketing Task)에서 論하는 統制不可能要素에 屬하여 換言하면 保護貿易主義로 表現되기도 한다.

先進諸國은 自由貿易主要를 讀揚하면서도 한편에서 保護貿易主義的 風潮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根本的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輸出商品을 받어드릴 만한 產業構造調整能力의 不足에 있다고 본다. 貿易이라는 것이 貿易을 하는 兩國에 보다 貿易利益을 가져다 준다는 比較生産費理論에 의하면 生產資源(資本과 勞動)은 各國內에서 產業間을 자유롭게 移動할 수 있다. 따라서 貿易機會의 出現에 의하여 比較 劣位產業이 생겼을 때 比較劣位產業으로부터 그 產業의 縮小에 따라서 방출되는 生產資源은 즉시 무조건으로 比較優位產業의 擴張(이것은 輸出擴大에 對應한다)에 의하여 吸收된다. 이런 意味에서 完全雇用이 늘 保障되어 生產側에 變化를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물론 資源이 使用되는 產業은 變化하고 資源의 相對價格에는 變化가 생기기는 하지만).

한편 外國으로부터 低價輸入品이 大量的으로 供給되어 消費者들에게는 큰 利益을 가져다 준다. 生產側에 아무런 利益이나 不利益을 생기게 하지 않으면 이 貿易은 명백히 國民經濟的利益을 가져다 준다. 比較生産費理論이라든가 自由貿易論에서 말하는 貿易利益이란 바로 이러한 利益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은 否定的인 경우가 적지 않다. 資源의 產業間移動에는 地理的移動이 많고 여기에는 여러가지 問題들이 따라 다닌다. 資本市場과 勞動市場은 그렇게 流通的이며 完全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輸入으로 因하여 縮小되어 比較優位產業으로부터 배출된 資源은 比較優位產業에吸收되지 못한 상태에서 短期的으로는 失業하게 될 것이다. 그 經濟가 動態的으로 成長하고 있을 경우는 몰라도 全體的으로 不況色을 띠고 있거나 停滯的일 때는 失業可能性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듈다.

이 경우一般的으로 生產者側의 소리는 消費者들의 소리보다도 클 경우가 많다. 生產者側의 힘이 政治的으로 過大하게 評價되어 低價의 輸出品의 流入을 沮止하라는 與論이 強하게 形成된다. 우리나라의 color TV 섬유류, 鐵鋼製品, 신발류 등은 美國에서 輸入規制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規制는 根本的으로 上述한 바와같은 理論的 背景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產業研究

오늘날의 保護貿易主義는 過去의 保護貿易이 유치산업의 保護育成을 위한 一定期間에만 實施되었던 것과는 달리 先進國의 사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長期的으로 存續되고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이러한 保護主義는 先進諸國들이 主唱했던 自由貿易原則을 스스로 포기 함으로서 世界貿易의 長期的 發展에 赤信號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經濟가 回復으로 轉換한 83年에도 改善의 進展이 없는 雇用情勢, 構造的 不況產業의 增大를 배경으로 각국에 있어서의 保護主義의 風潮는 높아가고 있다. 이런 중에서도 지금까지 自由貿易主義의 主導的役割를 擔當하고 왔던 先進諸國의 保護貿易主義의 措置의 增加는 世界貿易의 순조로운 擴大를 沮害하고 나아가서 世界經濟全體가 再次 1930年代의 縮小 均衡의 陷穿에 빠질 危險이 없지 않다.

世界經濟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있는 先進諸國은 產業調整으로서 또 其他의 方法으로서 하루속히 保護貿易主義에서 脫皮해야 한다.

上述한 바와같은 保護貿易主義의 現實 앞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對應策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첫째 經濟通商外交를 더욱 活潑하게 展開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是 先進諸國이 國際途上國 과정을 「卒業」한 新興工業國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開途國에 대한 特別配慮를 要請해도 별 效果가 없다는 認識下에서 行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通商外交는 官民合同으로 하되 소리없이 조용한 가운데 꾸준히 多角的으로 힘이 필요하고 로비活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競爭國들이 하는 方法도 研究해 가면서 效率的으로 해야 한다.

세째 우리나라의 輸出業者들이 일발적인 傾向은 예로서 어떤 品種이 어떤 海外市場에 輸出이 잘된다고 한다면 동일한 品種 또는 類似品種이 여러 會社에 의해서同一市場에 한꺼번에 몰려든다. 그리하여 同市場秩序를 교란시킨다. 그 결과 輸出對象國의 同種企業에 刺戟을 숨으로써 對象國에서 韓國商品에 대한 輸入制限運動을 또는 關稅引上運動을 이르키게 한다. 그리하여 數量自律規制를 當하게도 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自發的으로 輸出數量規制를 해서 우리나라 輸出에 利益이 되도록 함이 政策的으로 考慮되어야 하겠다.

네째 輸出對象國에 合作投資를 함으로서 예로서 우리나라의 金星社가 칼라·TV工場을 美國에 세운 것과 같은 投資를 함으로서 輸入規制를 피하는 方法을 그 對象國家市場事情

世界經濟環境과 輸出마아케팅의 問題點

에 맞게 합이 좋다고 본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長期的 輸出 眼目에서 世界各國의 市場을 잘 調查해서 產業調整을 해나가야 한다.

여섯째, 輸出對象國이 輸入制限對象이 되지 않는 新製品을 開拓해 나가야 하겠고 市場多邊化로서 輸入制限을 피하는 方法도 取해야 한다.

〈参考文獻〉

1. 韓國貿易協會, 貿易動向, 1983.
2. 韓國貿易協會, 1984 年上半期 貿易 및 國際收支動向, 1984, 7.
3. 韓國貿易協會, 最近國內外經濟動向, 1984, 9.
4. 韓國貿易協會, 最近輸入規制情報(1984. 9. 16 ~ 9. 30).
5. 大韓貿易振興公社, 우리나라輸出現況 84 年上半期, 1984, 8.
6. 大韓貿易振興公社, 中東·アフリカ市場에서 韓國商品에 대한 聲價調查, 1984, 7.
7. 大韓貿易振興公社, KOTRA 海外市場, 1984, 11. 22.
8. 韓國銀行, 韓國銀行主要經濟指標, 1984, 11. 5. No. 22.
9. 韓國經濟新聞, 서울, 1984, 11. 4.
10. 通商産業省, 経済協力の現状と問題, 東京, 1984.
11. 日本貿易振興會, 世界と日本の貿易, JETRO 白書, 1984.
12. 毎日新聞社, エコノミスト, 日本, 1984 年 10 月 9 日號
13. Vern Jerpstra, *International Marketing 3 Edition*, The Dryden Press, New York, 1983.
14. Philip R. Cateora, *International Marketing 5th Edition*,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83.
15. OECD, *Economic Outlook*, 1984. 7.
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4. 4.
17. 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Outlook*, 1984. 8.
18. *Business Week*, Nov. 12, 1984.
19. *Business Week*, Nov. 26, 1984.
20. *Business Week*, Oct. 15, 1984.
21. *Time*, Nov. 19, 1984.
22.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Nov. 26, 1984.

